№ 12월 20일 토요법회 식순 **№**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오늘의 영상 - "온 돌"(금강경독송회)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불자의 바른 신행 • 법 사 : 정각원장 법타스님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 이달의 초청강좌 ◆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12.27(토)	담마토크	동효스님 해남생물사주지스님
1. 3(토)	신년맞이 생활법문	원장스님
1. 10(토)	나의 신행이야기	권영순 (정각원 신도회)

● 정각원「불교아카데미」모집 • 매주토 법회 후 13:30~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요경스님	법학관158
교리반	l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Ⅱ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A103
수행반	달라이라마 행복론	마가스님	만해관 좌선실
한시반	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다정산방



정각원 불교대학 교수를 역임하신 법찬스님께서 BBS 불교방송 생방송 라디오를 진행 중입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행복한 두시」 매일 2시 법찬스님과 함께하세요~

● 방송: 월~금 14:05~15:50

● 진 행: 법찬스님, 박근혜아나운서

※ BBS♂채널: FM 101.9 MHz

정각원 청년회 법회

금일 청년회 법회는 송년기념으로 영화관람 으로 봉행합니다.

● 관람영화 : 국제시장 ● 장소: 대한극장 1관

시간: 14:00 ~(13:50까지 입장완료)

매월3주(토) 청년회 법회가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했다.

365일 108배 릴레이정진 동참 연인원은 현재 6865명 입니다.

건작108주년기념관 시주 동참 권선

동국대학교가 건학 108주년기념관 건립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이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 정각원사무실 ☎ 2260-3016~20

"생활 속의 금강경" 투 갓 안 내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사복)바른법연구원 주최로 「생활 속의 금강경」 특강을 개설합니다. 두루 동차하시어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의 진수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매주 월요일 17:30~ *개강 : 2559. 1. 5(월)

● **장** 소 : 정각원 명상실

● 법 사 : 김원수 (사복) 바른법연구원 대표이사

수강료 : 자율보시

문의 🏗 김선숙 010-3291-9920



보시돗참

🧆 12월 15일 불전 공양 🧆

₩ 1.527.000원

마가스님, 강은희, 고목훈, 곽원기, 권복숙, 권혁채, 김광한, 김동연, 김두식, 김신애, 김영옥, 김원수, 김종관, 김해운, 남창강, 박사임, 박성진, 박종린, 박지호, 선종덕, 안대준, 안승님, 오미영, 원서준, 윤호문, 이기형, 이범익,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이재철, 이충호, 이형식, 조동기, 조분옥, 조찬미, 조창원, 주해선, 주호빈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398.000원

(법사비, 토요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건작108주년기념관 건립불사 동참지❤️

부산여고 불교동백회

🧆 팔정도 보시 🧆

강병영, 남창강, 문양숙, 윤영균, 이민기, 이상은, 정영희, 정인악, 한승윤

∞ 인등 보시 ∞

문두성, 문두현

◈ 공양 보시 ◈

❖ 불 단 떡 : 전현정(보리성) ❖ 불단과일 : 정각원 신도회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동참 바랍니다..^^



정각원 토요법보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8(2014)년 12월 20일 제272호(週刊)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지리라.

(화엄경)



중국 사천성 불교협의회 정각원 방문

「동국의 종」 종강 정오 타종



● 15(월) 중국 사천성 불교협의회 스님 7분이 동국 대학교를 방문하고 정각원 참배를 하셨습니다. 원 장스님께서는 정각원 법당의 역사와 전통, 더불어 한 중불교 발전에 대해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19(금) 총장님과 원장스님, 교무위원 분들이 동참한 가운데 2014-2학기를 마무리하고 새 학 기를 준비하는 성찰의 타종을 캠퍼스에 널리 울 렸습니다.

전통사찰음식연구소 제 10기 수료생 졸업작품전



● 17(수) 본교 전통사찰음식연구소에서 원장스님을 모시고 제10기 수료 · 졸업작품전을 봉행하였습니다. 원장스님께서는 수료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 리는 자랑스런 동국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 정각원신도회 장학 수여식 ◁

건학108년 토요법회 기도법사로서 매주 기도를 이끌어주신 두 분의 조교스님과 법회 봉사와 신행활동이 돈독한 6명의 재학생에게 정각원신도회 장학금과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장학 수여자〉

252525252525252525

고금스님 명진스님

김병철(경 영 4)

김혜인(산업시스템 3)

임경혁(정치행정 4)

장우용(경찰행정 3)

채보미(불교미술 4)

한승윤(식품생명 3)

佛子(Danapati. 檀越)의 바른 신행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법단스님

1. 송구영신[送舊迎新]

1) 送故迎新: 애제(BC26~BC1, 20세 즉위) 밑에 왕가(王嘉)가 재상

혹 관리가 수개월 있다가 물러나면, <u>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하는 바람에</u>, 서로 뒤섞여 도로가 혼잡했습니다. 吏或居官數月而退, 送故迎新, 交錯道路 《漢書·王嘉傳》

2) 당 말부터 송 초까지 이름을 날리던 대학자 서현(徐鉉, 916~991)

除夜(그믐날 밤)

차가운 등불은 반짝반짝 시간은 느릿느릿

옛것 배웅하고 새해를 맞음에 거짓이 없네.

지난 일은 남은 날을 따라 물러나겠지만

봄바람이 찾아오면 옛 모습 알아는 보려나.

寒燈耿耿漏遲遲 送故迎新了不欺 往事倂隨殘曆日 春風寧識舊容儀

3] 送舊迎新

석상종감선사(石霜宗鑒禪師, AD807~888)가 『五燈會元』에서 <u>送舊年 迎新歲</u>로 여기에 "故"가 아닌 "舊"가 등장했다.

담주석상종감선사께서 상당하여 이르시기를,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지만,

이것(움직임과 작용)은 밝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맑은 빛이 가득한 어두운 방이 서늘하구나.

潭州石霜宗鑒禪師,上堂曰:送舊年 迎新歲 動用不離光影內 澄輝湛湛夜堂寒

4) 남사고(南師古, 1509 ~ 1571)의 격암유록

<u>옛 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좋은 시절</u>,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새로운 하늘의 운세 送舊迎新 好時節 萬物苦待 新天運

5) 서양의 송구영신: Ring out the old, ring in the new.

헌 반지는 빼내어 던지고 새것을 낀다. 악순환의 고리를 던져버리고 선순환의 반지를 낀다.

2. 冬至 (12월 22일): 24절기의 스물 두 번 째

- o 태양의 부활과 크리스마스: 이를 태양이 복원(復元)한다하여 동짓날을 축일로 삼았으며, 특히 태양신을 숭상하던 페르시아의 미드라코에서는 동지, 12월 25일<태양탄신일>로 정해서 태양의 부활을 축하하 였다. 고대 로마력(曆)에서 12월 25일은 동지(冬至)날이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을 1 월 6일과 3월 21일으로 보아 이를 성탄절로 삼았으나, 4세기 중엽 로마 교황청이 성탄일을 동지설날 로 통일시켰다. 옛날에는 동지를 설이라 했는데 이는 태양의 부활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이다. 설날이 바뀌면서 작은설 다음해가 되는 날의 의미로 아세(亞歲)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o 축귀와 팥죽: 팥죽의 붉은색은 양(陽)의 색으로써 귀신음귀를 쫓는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팥죽을 먹음으로써 마음속의 사악함도 깨끗이 없애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3. 불자의 바른 신행

1] 信心 장한 佛子: 華嚴經 賢首品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요, 온갖 착한 행위에 이른 길 키워주네.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서 위없는 열반의 길을 열어 보이네. 『華嚴經』「賢首品」

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 斷除疑網出愛流, 開示涅槃無上道

2] 下心으로 和合하는 佛子: 법화경 제 20 常不輕菩薩品

'저는 여러분을 마음 속 깊이 존경하며,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보살도를 닦아 반드시 성불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해 동안 그는 늘 욕설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성내지 않으며, 언제나 '여러분은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느니라. 常不輕:「항상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는 자」라는 의미

3) 三業(身口意) 清淨으로 和合砂는 佛子

- o 입 안의 도끼를 잘 다루어야 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끼가 입 속에 있나니 나쁜 말로 말미 암아 자기 몸을 스스로 베네. 『별역잡아함경』, 제 5권 한글장(인터넷판) 234쪽
- o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간직하면 처신하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 □是禍之門 舌是斬身刀 閉□深藏舌 安身處處牢 -풍도(馮道, 唐末 五朝 八姓 十一君 모심)
- ㅇ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眞理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和合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마라 『遺敎經』

4) 布施署从砂는 佛子: 三施 法施 無畏施 財施

o 어떤 것이 우바새의 보시행이라 하나이까?

우바새는 재물에 인색하지 않고 탐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되, 손수 베풀어야하며, 베풀 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잡아함경』제33:927경:2-236중

o 적으면 적은 대로 베풀고,

중간 정도면 또 그대로 베풀며 많으면 많은 대로 베풀라. 베푸는 것이 없으면, 가능성도 생기지 않는다.

"sudhabhojana jataka "

5) 동국대와 조계종을 사랑하는 佛子

o 조계종헌 제 10조: 신도는 삼귀의계, 재가 5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 봉행하는 자라야 한다.

o 조계종 신도법 제 2조: 신도라 함은 삼귀의계와 5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봉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참답게 삼보에 귀의하는 佛子: 영가 현각선사(永嘉 玄覺禪師, 665~713) 발원문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오니 원만하게 온갖 곳에 두루하여서, 앎이 없이 모두 아는 지혜 성품은 고요하고 평등한 참 바탕이며 빼어나게 장엄하신 몸의 모습은 있는 모습 아니고 없음 아니니 지혜광명 티끌세계 널리 비치네

稽首圓滿徧知覺 寂靜平等本真源 相好嚴特非有無 慧明普照微塵剎

- o 부처님 법 참 진리에 귀의하오니 맑고 묘한 참 깨침이 말로 나타난 십이부의 깊고 깊은 여러 경전등 글과 글씨 아니고 말이 아님에 여래는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나 중생은 부류 따라 모두 깨치네 稽首湛然真妙覺 甚深十二修多羅 非文非字非言詮 一音隨類皆明了
- o 청정하신 현성들께 귀의하오니 시방세계 다툼 없는 구도자들은 부처님의 계를 지켜 어김없으며 석장 물병 조촐한 살림살이로 널리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네 稽首清淨諸賢聖 十方和合應真僧 執持禁戒無有違 振錫攜瓶利含識

-학담 編著, 『영겁을 사는 진리의 행』, 큰수레, 2008. 134~135쪽